꿈을키우는대학교
대표 (043)645-1125~9
세명대학교

安東權氏宗報

기획인쇄·도서출판
울산사
Tel. 02.2268.2455
e-mail. emsmiok@naver.com
webhard.co.kr (ID. emsok/PW. 2455)
대표 권 순 탁
Mobile. 011.798.2455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72 신성상가 1023호

권율 도원수 웅치(熊峙)대첩 창열사(彰烈祠) 창건

△임진란 때 왜적에 맞섰던 웅치전적지에 이곳 권율 도원수 및 순절 자들을 기리는 사당이 건립돼, 7주갑인 지난해 8월 13일 진안군 군수 헌작으로 각계 인사와 주민들이 추모제를 올리고 있다. /진안군 제공

임진(壬辰)년 1592년(선조 25) 4월 부산을 침입하고, 5월에 한성을 함락한 일본군은 전국 곳곳을 점령하고 분탕질을 자행하고 있었다.

금산에 주둔한 고바야카와 휘하의 일본군 중 일부는 용담. 진안을 거쳐 웅치를 넘어 전주에 들어가려고 했다. 당시 광주목사 권 율이 격문을 띄워 1,500명의 군사를 모아 훈련한 다음 북상하자 조정에서 그를 전라도절제사로 삼았다.

권 율은 직접 부하를 지휘하여 이치를 막고, 김제군수 정담에게는 웅치(雄峙)를 막게 했다. 김제군수 정담, 해남현감 변응정, 나주판관 이복남 등이 이끄는 의병은 웅치에서 적의 2진을 맞아 험한 지형을 이용해 일단 적을 격파했지만 왜병은 전열을 가다듬어 재차 공격하여 왔다.

웅치대첩은 임진 전란사에 손꼽히는 대격전이었고, 특히 조선군의 주장(主將)인 정담은 포위당한 백병전으로 적을 무찌르다가 순국하였다. 웅치의 수비는 중과부적으로 비록 무너졌지만 왜군도 많은 희생자를 내고 큰 타격을 받아 전주성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전투가 끝난 후 **왜군은 조선군의 충성심과 용맹에 깊이 탄복해 용감히 싸우다가 순사한 조선군의 유해를 모아 무덤을 만들고 '조조선국(吊朝鮮國) 충간의담(忠肝義膽)' 이라는 표목을 세워 조선의 충신과 의사의 영혼을 조상하기도 했다.**

임진왜란 당시 수천의 왜군을 맞아 싸운 웅치(지금의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대)대첩은 호남 방어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으며, 일본에서도 단순히 전라도를 지킨 전투를 넘어 조선을 구한 전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바로 이곳에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 웅치전적지(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 18-1)가 자리하고 있다.

곰티, 한자로 표기하면 웅치(熊峙)는 대동여지도에도 '웅치(熊峙)' 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호남정맥의 하나다. 진안과 전주를 잇는 최단 거리인 곰치, 곰티재는 일제 때부터 목탄차가 다녔다고 하며, 일찍부터 신작로가 열렸고, 전주에서 무주, 진안, 장수를 오가는 버스길이 처음 열리기도 한 고개다. 전주로 갈 때는 곰티 이외에 성수면 중길리에서 소양면 월상리로 넘어가던 조두치도 많이 이용되었다고 하며, 일설에 의하면 곰티는 벼슬아치들이 넘던 길이고, 조두치는 서민이 다니던 길이었다고 한다.

진안 곰티재 창열사 완성"후대 부끄러움 씻었다"

1592년 8월 12일(음력 7월 7일) 김제군수 정담, 의병장 황박 등은 왜군에 맞서 전라도 웅치(熊峙)에 진을 쳤다. 웅치는 지금의 진안-완주 사이 곰티재로 이곳이 무너지면 전라도 수부(首部) 전주의 운명은 풍전등화였다. 조선군은 첫날 분전 끝에 수천의 왜적을 격퇴했으나 다음 날 아침 적군은 병력과 화력을 모두 동원했다. 백병전 속에서 조선군은 마지막 3선이 무너졌고 군수 정담까지 장렬히 순절했다. 순절자가 500명, 또는 1000명에 이른다고 전해온다. 왜군은 조선 의병과 관군의 시신을 모아 큰 무덤을 만들고, 이들의 충의를 기리는 표목을 세웠다고 한다.

왜군은 웅치를 지나 전주로 진로를 뚫었으나, 조선군의 기개에 눌려 전주성 밖 안덕원에 머물다가 물러갔다. 웅치 싸움은 권 율이 이끈 이치(梨峙·금산-완주) 대첩과 함께 왜적의 기세를 꺾어 전주성을 범하지 못하게 했다. 두 전투로 전라도는 정유재란 때까지 6년간 조선 군량 보급과 병력 보충의 기지가 될 수 있었다.

임진년 웅치 전투로부터 꼭 7주갑(周甲·420주년)을 맞은 2012년 8월 13일 전북 진안군이 이 싸움 순절자들을 기리는 사당을 완성했다. 전적지인 부귀면 세동리에 '창열사(彰烈祠)' 를 준공, 추모제를 올렸다. 웅치전적지 보존회 손종엽 총무는"그동안 마땅한 추모공간조차 갖지 못해, 주민들이 학교나 마을회관에서 추모제를 모셔왔다" 며 "후대로서 이제야 부끄러움의 일부를 씻게 됐다" 고 말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말씀대로 호남을 방어한 '웅치대첩' 의 역사를 간직한 곰티 옛길을 거닐면서 420년 전의 임진왜란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본다. 완주군은 28일 이곳에서 웅치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는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만큼 이 싸움의 역사적 사실을 다시 뒤돌아보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국가안보를 튼튼히 다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이날 추모제엔 전국에 흩어진 순절자의 후손까지 모두 300여명이 참석했다. 송영선 진안군수는"의회와 협의해 추가 예산을 확보, 사당 주변을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으로 성역화하면서 새 세대들이 언제든 머물다 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사당 건립엔 군비 2억7000만원이 들었다. 〈이종근 진안군 문화교육부〉

독립운동가 권준장군 기념홀 개관 제50보병사단

△이승만 대통령에게서 육군 제50사단기를 수여받는 권준 장군(1955. 7. 5)

△권준홀 명명식 후 유족 및 장병 기념촬영

우리 권문을 빛낸 독립 운동가이며 정통 무장이신 權晙(권준) 장군(검교공파 32세)을 기리는 행사가 지난 달 6월20일 장군께서 창설하신 부대 중 하나인 육군 제50보병사단에서 거행되었다. 사단 창설 58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거행된 '권준 홀' 명명 및 개관식에는 장군의 장손 권영철, 증손 권오명 등 유족과 친지, 대구지역 유지 및 장군의 고향인 상주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사단 창설 기념사에서 사단장인 김해석 소장은 "초대사단장이자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 운동가 권준 장군을 기리기 위해 '권준홀' 을 개관하면서 부대 장병들은 장군께서 초대 사단장이셨음에 자긍심을 가지고 부대가 육군 최정예부대가 되도록 노력하자"라고 장군을 기렸다.

창설 기념식 후 '권준홀' 명명 및 현판 제막식이 있었으며, 유족은 홀 개관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로 장군이 초대 사단장일 때 직접 작성한 '3.1절 기념사' 와 저서 등 5개의 유품을 부대에 기증하였다. 또한 장병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 축구공 등을 부대에 선물로 기증하였다.

개관기념 행사에서는 후손인 권영빈씨(중앙대 교수)의 장군 약력 소개가 있었으며 장손인 권영철씨의 장군을 회상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회고담에서 장군의 "국어사랑", "역사사랑", "도덕사랑"에 대한 얘기는 참석한 모든 이의 가슴에 새겨졌고, 장군의 성품과 높은 "나라사랑"에 장내가 숙연해졌다. 마지막으로 장군의 3.1절 기념사(1956) 낭독과 함께 참석자 모두가 기념사 끝에 기록된 "배달겨레 만세", "대한민국 만세", "우리국군 만세"의 만세 삼창으로 기념행사를 마쳤다.

권준장군은 항일투쟁 의열단원으로 중국황포군관학교 4기로 졸업하고 상해 임시정부 내무차장과 광복군 제5지대장으로 독립의 선봉에 섰으며 귀국 후 권씨 문중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서 6.25전쟁 당시 전소된 안동 태사묘우(太師廟宇)를 중건하여 권,김,장 3성이 매년 춘추 향례를 받들도록 크게 기여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8년 장군에게 건국훈장독립장을 추서하고 2011년 10월 독립기념관 공원에 장군의 독립운동 어록비(語錄碑)를 세워 국가보훈처장, 광복회장, 권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거행한바 있다.

▣ 권준장군 주요양력 및 상훈

▲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차장, 1945년 광복군 제5지대장, 1949년 초대 수도사단장, 1955년 초대 50보병사단장, 1956육군소장 예편

▲ 을지, 충무, 화랑무공훈장,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유족

▲ 장남 泰烋 손자 영철, 영혁, 영빈, 영유

〈편집부〉

경북지역 종친회장협의회

慶北地域 宗親會長協議會

△종친회장들은 시조묘소를 참배하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지난 6월 20일 11시부터 전국종친회장협의회(회장 권길상) 경북지역 간담회(懇談會)가 임원진과 경북지역 종친회장 14명과 내빈 5명이 참석하여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동재사(陵洞齋舍) 추원루(追遠樓)에서 개최되었다.

협의회 길상회장은 정기총회 이외 중간에 동북부지역(東北部地域)과 중서부지역(中西部地域) 그리고 남부지역(南部地域)으로 분할하여 개최하기로 지난봄 임시총회에서 결의하였는데 오늘 시조님 실묘가 계시는 능골의 추원루에서 갖게 됨을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정하였다 하고 하절기(夏節期)이며 농번기(農繁期)라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많이 오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하고 와보니 추원루가 시원하여 보람있고 뜻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어 시조님께서 반겨주신 듯 하다고 하였다.

주과포(酒果脯)를 준비하였으니 시조(始祖)님께 고유(告由)부터 하자 하여 모두 묘소(墓所)로 올라가 잔을 올리고 재배하였다. 일천년이 지난 시조 태사공께 고유하니 모두들 감회가 새로운 듯 표정들이 엄숙하였다. 전국 각 지역에서 종친회, 지파 종중별로 후손들의 보학교육 겸 시조님 묘소에 참배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권문의 자손들은 모두 숭조사상이 뚜렷하고 이렇게 참배를 할 수 있도록 능동재사와 신도비, 그리고 낭중공 단소 까지 한 곳에 모여 있고 봉정사까지 둘레 길과 정자까지 잦추어 있으니 유적지로 손색없음을 족친들이 모두 광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

시조님묘소는 진듸가 파릇파릇 잘 자라고 관리도 잘 되었는데 지난번 폭우로 일부 함몰되어 보수작업을 지시하고 일행은 낭중공(郎中公) 단소(壇所)에 올라가 역시 주과포를 올리고 재배하고 다시 추원루로 돌아와 회의를 하였다.

길상회장은 협의회(協議會)의 목적(目的)이 대종원(大宗院)의 발전(發展)과 종친회(宗親會) 상호 교류협력(交流協力)을 통한 균형발전(均衡發展)을 위해 매우 보람된 조직체(組織體)로서 여러 종친회장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어 감사하다고 하였다. 다만 오늘 강릉과 원주가 사정이 있어 불참하게 되어 경북지역만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좌담회에 앞서 협의회장은 권계동(權啓東) 파종회장협의회장(派宗會長協議會長)을 비롯한 내빈을 소개하고 참석한 종친회장을 소개하였다.

좌담회에 들어가 권영창 영주종친회장은 지난 4월 체육대회에 많은 족친이 참석할 것으로 감안하여 음식을 많이 준비하였는데 기대에 못 미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면서 다음 체전부터는 종친회장님께서 5분만이라도 대동하고 오시면 체육대회는 빛나고 전국이 참가하는 의미를 더 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권호준 대전종친회장은 내년 전국청장년체육대회(全國靑壯年體育大會)가 2014년 4월 27일(4周 日曜日) 대전시 중구 침산동 유등천 뿌리공원에서 개최되는데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대전남부 고속도로 안녕ic에서 나와 10분 거리로 찾기 쉽다고 하면서 뿌리공원은 경관이 빼어나고 족보박물관도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고 하였다. 예산은 종친회에서 5,000만원을 마련하고 청장년회에서 나머지 마련하면 큰 문제없이 행사를 치룰 수 있으니 종친회장님은 관광을 겸하여 가족과 함께 오시면 교육도 되고 매우 뜻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 많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6.20 종친회장협의회 경북지역회의가 능동재사 추원루에서 개최되었다.

△종친회장들이 낭중공단소에 가 참배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회장단은 경산 권태수, 구미 권영화, 마포 권승구, 문경 권영하, 봉화 권정길, 부산 권길상, 안동 권재주, 영천 권영성, 예천 권영학, 의성 권오열, 대전 권호준, 영주 권영창, 수원 권영갑, 영덕 권병윤 회장 및 총무,

외빈인사, 대종원 권계동 파종회장협의회장, 권경석사무총장, 권순갑사무부총장, 부산 권임호사무국장 등이다.

점심은 추원루에서 이 지방의 별미(別味)로 이름난 '건진국수' 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협의회장은 참석자 전원에게 우산을 증정하였으며, 안동종친회장은 권동순 대구매일신문기자의 협찬을 받아 안동간고등어 1손씩을 복야공파에서 발행한 '파종회지(제2호)' 증정하였다.

(권영갑 협의회 간사)

안동권씨 홈페이지 활용

홈페이지를 많은 족친께서 열람하고 있는데 인터넷주소 질의가 자주 옵니다. 아래 인터넷 검색창에서 안동권씨 대종원 넣으세요

naver.com/ nate.com/ daum.net
google.co.kr

검색창에 안동권씨 대종원

安東權氏宗報 | 종시: 숭조이념확립·애족사상고취 후학계도기여·사회윤리배양

발행인 권정달 편집인 권경석 인쇄인 권영웅

발행장소 : 안동권씨대종원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5-3(2층)
우: 130-820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안동사무소 :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418-1(3층)
우: 760-905 전화 (054) 854-2256 FAX(054)854-2257
태사묘 연락소 : (054)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서재)

E-mail : ankwon2695@naver.com / ankwon2695@nate.com

편집위원	권계동, 권오복, 권혁채, 권승세
기 자	권영건, 권범준, 권혁세, 권경일, 권오인
자문위원 : 권중달, 권인호, 권영한, 권영섭, 권오창	

예금주 및 계좌번호
권 경 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안동권씨대종원) 농 협 076-02-247343

종보사(개인독자)
우체국 : 종보사
010108-01-000369